문화광장

선택적 분노

장 수 명
동화작가

매스미디어(mess media)가 발달 할 대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신문, 방송, 인터넷 심지어 개인 미디어들까지 등장한 현실이고 보면 우리는 이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 일부가 이미 퇴화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이런 연구를 사회관계망에서 인정하는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기관이 연구했다며 보고서를 발표하고 데이터를 내면 우리는 가감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스미디어가 깊숙하게 파고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사회현상이야말로 현 인류가 봉착해 있는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해 의심하고 그 판단을 미룬 체, 사회관계망에서 내놓는 보편적 혹은 집단적 데이터만 의존하며 자아결핍장애상태(필자가 만든 용어)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는 어쩌면 홀로그램 속 세상에 갇히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홀로그램우주'이론에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무질서한 모습이지만, 그 이면은 질서를 갖추고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돼 있으며 더 깊은 차원의 물리적 세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현실이 존재한다고 그는 역설했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자아를 망각한 인류는 가상의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매스미디어의 폐단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요즘 이슈인 램지어교수의 논문에 관한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이다.

그는 어쩌다 '가짜학문'을 발표했을까? 우리나라 학자라고 지칭되는 자들이 그를 옹호하는 건 왤까? 가볍게 보면 개인의 일이지만, 깊게 바라보면 나라의 역사왜곡인데 정부는 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걸까? 이런 일련의 현상들 사이에서 '선택적 분노'란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했다.

선택적 분노란, '강약약강'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좀 더 비약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비굴, 비겁'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해도 될 듯싶다. 우리는 개인이니까, 비굴하고 비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굴하고 비겁해서는 안 된다. 램지어라는 일개 교수의 역사왜곡과 막말을 결코 가만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초기에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전세기를 띄워서 데리고 오는 정부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콧등이 시큰하고 언제 이런 대접을 우리가 받았던가 했다. 정부는 과거 나라가 약해서 그 분들이 겪은 그 시간들을 바로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며, 다시는 램지어 같은 '학문적 불법행위' '가짜 학문'등이 세상에 나돌지 않게 쐐기를 박아주길 간곡히 바란다!

사설

자체 조사로 제2공항 투기 의혹 풀리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신도시에 이어 세종시 토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서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계속 번지면서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다. 국민들의 공분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해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 여부를 이달 말까지 조사해 도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서귀포시 성산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현재 재직중인 제주도의 모든 공무원이다. 원 지사는 "조사 결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입지를 둘러싼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려면 자체 조사로 끝나선 안된다.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2015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도외인 토지거래를 도외시한 채 조사한다면 누가 믿고 납득하겠는가. 게다가 현직만 조사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적어도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근무한 공무원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주도의 자체 조사로 투기 의혹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도민은 없을 것이다.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한 차명거래 조사 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 더욱 그렇다. 엊그제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LH 직원 투기 의혹 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변죽만 울렸다'는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잖은가. 따라서 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히려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농촌인력 만성 부족, '특단의 대책' 내놔야

도내 농촌인력 부족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영농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촌인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다 행정·농협의 인력지원 노력도 실질적 도움을 못 줘 만성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 농민들은 인력난을 틈탄 '묻지마'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농촌 인력난은 겨울채소 수확에 이어 두 달 후 마늘 양파 수확기를 맞으면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무 재배 농민이 인력을 못구해 애를 태웠고, 불법체류자를 구해도 다른 농가에서 웃돈을 제시하며 빼가는 피해를 당할 정도의 극심한 인력난 현실을 본지에 호소할 정도다. 서부지역 마늘·양파 수확기인 5~6월이면 더 심각한 인력난은 불가피해 벌써부터 농심을 애태우고 있다.

농촌 인력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간 인력난을 풀어주다가 코로나19로 불법체류자마저 급감해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내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 2016년 7788명, 2019년 1만4732명으로 급증하다 2020년 1만2019명으로 첫 감소세를 보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지난해 코로나19로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다시 운영에 들어갔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작년 농식품부의 도 농인력중개시스템 운영, 제주농협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도 가동 중이지만 실질적 도움을 못주고 있다. 신청인원도 많지 않고, 국내 구직자들은 낮은 노동 숙련도와 의지 부족으로 농가에서 기피하는 사례 때문이다.

농촌 인력난은 농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국내 구직자 농촌 일자리 제공 등을 대폭 확대하는 중·장기적인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할 때다.

열린마당

우리집 안전 백신 '주택용 소방시설'

강 경 훈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화재현황 분석결과 봄철이 5만9653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봄철 화재로 인한 총 사망자 453명 중 260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운영하고, 쪽방촌·소규모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전기·가스 등의 안전한 사용과 화재 시 행동요령 교육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참여가 없으면 큰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 최소한의 예방설비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월7일 0시11분 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한 빌라에서 잠을 자던 A씨는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일어나 즉시 자녀와 함께 대피하여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집안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며, 주택용소방시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순간이다.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각 층·세대별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지역의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한번 설치하면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백신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2021년이 되길 희망해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지하수 보전·관리 최선 다하겠다"

도, 청정제주 홍보 영상 제작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 제주의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홍보자료로 애니메이션 영상 5편을 제작하며 보전의지를 피력.

애니메이션은 지하수의 생성 과정, 물 이용 역사와 문화, 제주 물의 위기, 물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규리', '산물이', '버기' 등 캐릭터를 활용해 유아와 아이들이 알기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문경삼 도환경보전국장은 "애니메이션 영상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다"며 "지하수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미얀마 시민들에 연대 밝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15일 제주도교육청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연대의 뜻을 표명.

이날이 마침 '3·15 의거 61주년'이라는 이 교육감은 "61년 전 학생들이 앞장서 부정선거에 저항했고 그 흐름이 4·19혁명의 계기가 돼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고 발언.

이 교육감은 "미얀마 사태를 보며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열사들을 기억했다"면서 "그 의미를 반영해 제주와 여순을 잇는 인권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강조. 진선희기자

장애아어린이집 놀이터 조성

○…서귀포시가 2019년 도내 최초로 신축한 공립 장애아전담 '별빛하나' 어린이집에 실외놀이터를 신규로 조성, 4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이들은 실외놀이터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

시 관계자는 "시설비 3000만원을 어렵게 확보 현재 설계용역 중"이라며 "장애 영유아 등 보육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 백금탁기자

부 고

오용범 어머니 **고부이씨 기화(학선군 부인·향년 90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14일 19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1년 3월 16일(화요일)
▶발인일시 : 2021년 3월 17일(수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 양지공원→한울누리공원

아 들 오용범 며느리 고중화
오희범 박덕심
(故) 오석범
오형범 김신열
(故) 임관용 신애순
(故) 오승종 김은실
딸 오영민 사 위 김진홍
오영순
오영숙 김정봉
오영심 이정훈

※연락처 : 오용범 010-5555-5353
오희범 010-2691-2839
오형범 010-3693-4686
오영심 010-3119-1471

부 고

강문창(前 제주시청) 어머니 **연안김씨 을정(도지정 무형문화재 전통주(오메기·고소리술)기능보유자·향년 97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15일 08시 03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1년 3월 17일(수요일)
▶발인일시 : 2021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2빈소(2층)
▶장 지 : 양지공원→성읍리 공설묘지

아 들 강문창 며느리 김희정
문종 변정심
문칠
문규
문석
딸 강경자
경순 사 위 김용환
손 자 강한성 손 녀 강성희
동현 하라
나루 유미
한얼 유리
한결 여울
한샘 선형
선제
외손녀 오재민
오은영
김지영

※ 연락처 : 강문종 010-9187-1932
강문칠 010-3699-8806
강문규 010-2937-3276
강문석 010-5695-1545
변정심 010-6660-1545
강경순 010-6640-155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어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